

특명함·디지털 신분증... 카카오, '비즈니스 플랫폼' 도약

카카오 '이프 카카오 2021'

카톡 대화방서 특명함 주고 받고 개방성 확대해 사용 가능성 제고 카톡 채널·카카오 인증서 결합도

#스마트업 마케터 권유영씨(29)는 거래처와 미팅할 때 종이 명함을 꺼내지 않는다. 카카오 '특명함'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명함을 받은 후 따로 연락처를 저장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팅을 진행하면서 수고로움을 덜 수 있었다. 회사 판매 채널을 관리하면서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면 상품 판매까지 한 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다른 채널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가 없어지면서다.

카카오가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업무 기능들을 추가하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새 단장에 나선다.

카카오는 연례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 2021'이 열리는 첫날인 16일 '함께 나아가는 더 나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주요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대한 현황



이종원 카카오 CBO.

/이프 카카오 2021 갈무리

및 전략, 방향성 등을 소개했다. 카카오는 이날 특명함, 카카오톡 채널을 소개하며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대체

이날 카카오는 신분증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특명함'을 소개했다. 특명함은 신분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디지털 명함이다. 디지털 자격증 표시가 가능하고 대화방에서 명함을 주고받거나 공유할 수도 있다는 편의성

을 갖추고 있다.

카카오는 타 애플리케이션과의 개방성을 확대해 디지털 명함의 사용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오픈채팅에 디지털 신분증, 자격증을 이용해 오픈채팅방에 입장 자격을 설정하는 기능을 준비 중이다. 또 오픈채팅방에서 음성으로 대화하는 '보이스룸' 기능, 카카오톡 채널에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고객들과 소통하는 기능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택수 카카오 CPO(서비스 부문 책임자)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향후 디지털 명함을 원하는 타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스워드 저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서비스 '독서탑 플러스'도 서비스를 늘릴 계획이다.

김 CPO는 "카카오톡뿐 아니라 단말기에 저장된 사진·영상·파일 등의 보관을 위해서도 독서탑 플러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며, 저장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채널' 기능 강화

카카오는 카카오톡 채널 홈 공간을 파트너의 비즈니스와 고객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 강화를 계획 중이다.

이종원 카카오 CBO(비즈니스 부문 책임자)는 "파트너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상점을 채널 홈에 그대로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소수의 파트너들과 함께 테스트하고 있다"며, "원클릭 회원가입인 카카오싱크와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는 별도의 로그인이나 배송지

입력 없이 채널 홈에서 파트너의 온라인 상점 그대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로그인 없는 간편 구매를 지원하는 카카오페이 구매 서비스를 통해 파트너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카카오톡 내에 온라인 상점이 추가되는 판매 채널 확대 효과를 누리고 있게 된다.

카카오톡 채널과 카카오 인증서를 결합해 입점 고객들의 비즈니스 안정성도 높인다. 카카오는 파트너가 판매하는 제품의 인증 또한 카카오 인증서와 연동해, 파트너가 보증하는 인증 카드를 블록체인 형태로 이용자의 카카오톡 지갑에 소장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CBO는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의 사칭, 피싱 문제 해결을 위해 카카오 인증서와 결합된 비즈니스 프로필 제공 예정"이라며, "카카오 인증서 통해 인증된 사업자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metroseoul.co.kr

“내년 공격적 외연 확장... 매출 2배 목표”

NHN두레이 '미래 비전' 발표

협업툴로 두각... 사용자 13만명 모든 영역서 성장·도약 '자신감' 비대면 기능 고도화... 대기업 공략

NHN의 협업 솔루션 자회사 NHN 두레이가 내년 모든 영역의 매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협업툴 두레이에 '하이브리드형 결제 시스템'을 추가하고 고객사를 확대해 2022년을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NHN두레이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업 솔루션 '두레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비전을 소개했다. 두레이는 통합에 방점을 두었던 협업툴 서비스에서 진일보해 기업을 위한 종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해 대기업 결제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NHN 플레이아트를 비롯한 일본 내 NHN 그룹사가 활발하게 두레이를 활용하는 만큼 일본을 필두로 한 글로벌 진출 청사진도 발표했다.

먼저 NHN두레이는 고객사 확보, 매



NHN 두레이 백창열 대표.

/강준혁 기자

출 규모 등 모든 영역에서의 2배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NHN두레이는 순수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에 있어 지난해 9월 대비 250% 이상의 성장을 이뤄낸 만큼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백 대표는 "NHN두레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하이브리드한 형태의 기업이라 협업문화를 이해하며 협업툴을 만드는데 최적의 공간"이라며, "새로운 비

전을 내세운만큼 내실있는 기업으로서의 성장과 협업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2022년을 확장하고 확대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NHN두레이는 프로젝트, 메신저, 메일 등을 통합한 올인원 협업툴 서비스 제공을 1단계로 규정하고, 새로운 2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전통적인 업무 환경까지 두레이 안으로 품어 기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SaaS 형으로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글과컴퓨터그룹과의 동맹도 강화한다. 양사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독 모델 기반의 사업모델을 추진한다. 서비스는 NHN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적 안정성에 보안성을 입증한 NHN두레이에 동시 접속으로 문서 협업이 가능한 '한컴오피스 Web'과 결합하는 형태로 전개한다. /강준혁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AI 관한 법률안'에 데이터 규정 보완을”

인공지능 법률안 입법공청회

이용빈 의원은 지난 7월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이 법안에 AI를 학습시킬 데이터에 대한 규정이 통째로 빠져 있다며 데이터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변호사는 16일 프레스센터서 개최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에서 "AI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에 대한 법률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서 내가 데이터를 끌어다 학습을 시키려고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제재를 받는 지 알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손 변호사는 또한 "2조에서 제시한 인공지능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34조로 가게 되면 운영 고지 조항이 있는데,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범위가 확대하면 고지의 의무도 확대해진다"며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인공지능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31조 인공지능과 윤리에서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인공지능 제작자가 어떤 인공지능을 만들었나 하는 부분에서 투명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호 스노아이템 대표는 "AI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이고 코어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S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실리콘밸리 개발자들은 처우가 낮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법률안에도 업계 기준이 되는 S급 인력 육성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인공지능 윤리는 이미 국

제적인 규정이 나와 있고 중국은 국제 규정을 영문판 규정으로 해 정부 부처에 배포해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을 위한 AI 윤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출 지향적 국가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때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윤리 규정을 참조해 윤리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융합신산업과장은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국내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막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수준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맞춰나가는 수준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과장은 "법률안에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AI를 학습시키면 저작권법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불안감이 많다"며 "인터넷에서 크롤링하는 정보를 사용하면 안전한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발의는 돼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속도가 느린 만큼 인공지능 관련 논의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균 이용빈 의원실 보좌관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마련' 주제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적 투자 및 법·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은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 등 전 단계에서 국민의 안전성과 존엄성이 보호되는 윤리적 접근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인공지능 사회 구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윤정 AI 전문가 기자

LGU+, LS그룹에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U+ SD WAN' 서비스

LG유플러스는 LS ITC와 함께 'U+ SD WAN' 서비스로 LS그룹 인프라망에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U+ SD WAN(Software Defined Wide Area Network)은 소프트웨어로 고객 인프라를 제어하는 기술을 이용해 업무 서비스별로 품질을 보장하

고,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에 대처할 수 있다. 중앙에서 각 지사의 장비를 원격으로 자동 관리할 수 있어 언택트 시대의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다.

전국의 계열사와 연구소, 사업장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S ITC는 급증하는 트래픽을 보다 유연하게 수용하고 복잡해진 네트워크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그룹 WAN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U+ SD WAN 도입을 통해 그룹 온라인 시무식, 원격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업무 트렌드에 맞춰 트래픽이 급증하는 시점에도 어플리케이션의 품질(QoS)을 보장하고, 'SD WAN 포털'의 중앙 관리 및 자동화 기능을 통해 서울 본사에서 지역 사업장의 이용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채윤정 AI 전문가 기자 echo@